

## 2025 예술지원 정기공모사업 사업별 심의위원회 의견

### 1. 차세대artiStar지원

#### □ 시각

- 본 심의는 지원 작가의 전문예술 활동실적, 성장 가능성, 사업 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1차 행정평가와 2차 인터뷰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자를 결정했다.

지원 작가의 포트폴리오와 지원신청서를 근거로 각 작가들의 독자적인 예술성을 가늠하였으며,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의 명확성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각 지원자가 제안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함께 추진 전략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아울러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과의 관계성, 사회적 공헌도를 함께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

#### □ 음악

- 2025년 차세대artiStar지원 사업 음악분야를 심의함에 있어 5명의 심의위원은 지원자의 예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대전지역 클래식 예술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인 예술가를 선정하기 위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대부분 지원자들이 우수한 역량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나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차세대 예술가를 선정한 결과 첼로, 비올라, 피아노, 트럼펫 지원자를 선발하는데 5인의 심의위원들이 합의하였다.

- 2024년도 1년차 사업 선정자들은 올해 2년차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예술성의 본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하기 바란다.

## □ 전통(국악)

- 대전의 젊은 예술가를 발굴·지원하고자 본 심의는 실연심의와 인터뷰 심의로 진행하였다. 지원자 모두 대전과 충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지렛대 삼아 자신과 대전예술계의 발전을 시도하고자 했다.
- 본 사업은 2년 연속 지원 사업으로 활동실적, 성장 가능성, 기여도와 파급효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업계획의 정밀함과 꼼꼼함이 필요하다.
- 1년 차는 지원자가 본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잘 세웠는지 2년 차에는 1년 차의 시간을 기반으로 공연 등 실현계획과 구현력을 잘 갖추었는지 살펴보았다.
- 대전지역은 한국 전통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모습과 공연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 □ 무용

- 2025 예술지원 정기공모사업 중 ‘차세대artiStar지원(무용분야)’에서는 서류, 프레젠테이션, 인터뷰, 실연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활동실적, 성장가능성, 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파급 효과 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예산책정의 구체성, 동시대적인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1건을 선정하였다.
- 선정건의 1차 년에 관한 세부 의견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안무적인 요소에 맞출 것인지 혹은 춤적인 부분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탐구와 실행에 있어 기존 스타일의 재현보다는 새로운 발견과 개발을 통해 자기만의 예술세계를 펼쳐야 함을 강조하였다.

## □ 연극

- 사업에 지원한 청년예술가들의 열정과 절실함에 감사를 표한다. 지원사업이 갖는 특성상, 사업의 의도와 내용의 질적인 부분만큼이나 ‘해당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심의 기준이었음. 본 사업은 대전지역의 청년 연출가가 본인의 연출역량을 키워 지역의 연극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에 심의위원들은 목적에 합당한 계획을 세웠는지 그 계획이 역량을 강화시켜 2차년도에 실행력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중심에 놓고 심의하였다.

## 2.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 지역예술가들의 국제적인 역량과 발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예술적 자질과 국제적인 교류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 공연 및 전시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한 규모를 강조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차제에 실속과 수월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획이 수반되어야만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 또한 젊은 예술가들의 예술시장과 국제적 네트워킹을 지원함으로써 대전 예술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의 파생적 취지가 좀 더 강조되길 바라며, 특히 이를 위해서 사업의 지원규모와 금액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재단의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

## 3. 공연예술단체육성지원

- 2025 공연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의 목적은 대전의 대표 공연예술단체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작품 제작 및 발표를 통한 지역 브랜딩 공연개발을 하는 것이다. 사업의 지원 필수조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의 정기 공연의 실적이 요구되었기 때문인지 생각보다 많은 단체가 지원하지는 않았다.
- 7명의 심의위원은 이번 사업이 처음이기에 기준점을 세우기 위해서 엄격한 관점에서 심의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지원 작품의 예술적 수월성을 담보하기 위한 단체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단체의 기존 활동이 얼마나 우수한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 기획 및 작품의 예술성, 실행역량의 우수성, 예산의 타당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원단체의 장르적 정체성이 잘 반영된 기획으로 단체의 예술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평가기준이었다.
- 기존 상주단체지원사업에서 목적이 변경된 신설 사업이어서인지 지원단체들이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원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상주단체지원단체의 수혜경험이 있는 단체가 많았는데, 이전의 상주단체지원사업과의 차별성 없이 관성적으로 작품을 기획한 경우가 있었다. 대중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술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경우, 예산의 구체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경우, 단체와 작품의 장르적 정체성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서 아쉬웠다.

## 4.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심의위원회는 대전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제를 발굴·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 기반 구축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에 부합한 대상단체를 선정하고자 심의 기준에 맞추어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였음
- 특별히 7명의 심의위원은 신생으로 사업 진입을 신청한 단체와 경력으로 신청한 단체의 심의 기준을 통해 대전공연예술축제가 지속성 및 발전성을 실현하기 위해 신생 사업의 진입을 가능할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전년 대비 줄어든 예산에 비해 신청단체는 증가된 현실에서 장르의 다양성도 적극 고려할 수 밖에 없었음. 이에 따라 2025년도에 개최되는 기초예술분야 기반의 예술제로 독창성, 예술성, 대중성을 갖춘 콘텐츠 발굴을 통한 실현이 대전공연예술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였음
- 심의에 판단 기준이 되었던 전년도 평가 사항의 반영도와 인터뷰에서 발표 및 질의응답에서 나타나는 지원 예술 축제로서의 확장성과 파급성 등이 구체성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수행 단체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리고 예산의 타당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이에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이 대전 대표 공연예술제로 발전되기를 기대하여 추후 예산이 증액되어 더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이 펼쳐지고, 참여 단체도 확대되기를 의견으로 제시함

# 2025년도 예술지원 정기공모사업 심의위원 명단

[차세대artiStar지원]

분 야	성 명			분 야	성 명			
시각	권	혁	규	음악	정	완	규	위원장
	강	현	욱		노	선	미	위 원
	함	선	재		오	지	희	
무용	심	정	민		이	미	현	
	김	경	신		정	재	윤	
	정	길	만	윤	명	원	위원장	
연극	김	인	경	전통 (국악)	송	현	민	위 원
	백	로	라		유	병	진	
	이	시	우					

※ 총 5개 분야 / 17명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외 2개 사업]

분 야		성 명		분 야		성 명	
국제문화 예술교류 지원	유	진	상	위	원	장	
	김	은	희	공연예술 단체육성 지원			위 원
	김	예	림				
	정	완	규				
	주	소	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김	이	석	위	원	장	
	강	현	철				
	노	복	순				
	박	숙	자				
	이		송				
	장	정	진				
	황	치	준				

※ 총 3개 사업 / 19명

### 〈심의회피에 관한 사항〉

- 지원신청자가 민법 제777조, 민법 제779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및 가족관계에 있거나 지원신청사업과 관련된 심의위원은 해당 신청사업 심의 회피 의무화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조속과 직계비소계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이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심의 회의 개의 전에 모든 심의위원에게 서약서 징구
- 신청사업과 관련된 해당 심의위원은 대전문화재단이 정한 양식에 그 관련성을 기재한 후 심의 회피

(1) 신청사업의 작가, 작곡가, 감독, 연출가, 배우, 안무자, 지휘자, 기획자, 스태프 등 공동·협력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

(2) 단체 창립자, 단체 전대표 및 전·현 임원, 총무, 간사 등

- 심의회피건수: 총 3건 / 시각 2건, 음악 1건